

‘식사비 대납 의혹’ 김슬지 후보자격 박탈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
 김슬지 도의원 후보 부적격 결정
 이원택 대납 의혹 관련 책임 조치
 업무추진비 경찰 수사 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지난 16일 이원택 전부지사 후보의 식사비를 도의회 법안카드로 대납한 김슬지 전북도의원(비례)의 지방선거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관위는 식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된 장분인에 대해 도의원 후보 부적격을 결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앞서 공관위는 김관영 도지사 대리비 수령 사건과 관련된 후보자 5명에 대해서도 후보자 부적격 결정을 한 바 있다”며 김관영 지사의 견과 이원택 의원의 건 모두 공평무사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후보 자격이 박탈된 김슬지 의원은 오는 6.3지방선거에서 부안지역구 도의원 후보로 등록하고, 공관위의 심사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스마트팜부터 방산까지 17일 김관영 지사는 장수 임대형 스마트팜과 농어촌 기본소득 가맹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무주군 전북 성장모델 구축을 찾아 지난 3월 체결된 도-무주군-현대로템(주) 투자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전북자치도>

이에 김 도의원은 이번 6·3 지방선거에 부안 지역구 도의원으로 재선을 준비했으나 민주당 후보로는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김 도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서 이 의원과 정읍·고창 지역 청년들의 식사

비를 도의회 업무추진비와 사비로 결제한 사실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 ‘올해의 건배주’ 마케팅 시동 ‘비정규직 우대임금’ 윤준병 대표 발의

건배주 선정 4개 업체 참여 간담회
 도청 로비 전사-체험형 홍보 운영
 유튜브·온라인 마케팅 지원 확대

전북도는 지난 17일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양조업체 지원 방안을 논의 위해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올해의 건배주 선정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올해의 건배주로 선정된 정읍 한국술도가의 ‘빨간율탁’, 부안 유유양조의 ‘변산노을’, 고창 배상면주가 고창LB의 ‘복분자음’, 남원 비준양조의 ‘화동원42’ 등 4개 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북 전통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과 유튜브·홍보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도는 전통주의 인지도 확산과 소비 촉

진을 위해 도청 1층 로비에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올해의 건배주 전시대’를 설치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전시 공간에서는 선정된 전통주 4종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음용 방법과 어울리는 음식, 구매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해 관람객이 전통주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북자치도는 생생장터 입점, 방송 및 온라인 홍보, 대형 유통채널 협업 등 다각적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 전통주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 전통주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대표 산업”이라며 “양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 구조 개선
 양극화·고용 불안 해소 제도화



윤준병 의원

자과 정규직 노동자 간의 ‘균등한 처우’를 제도화하는 ‘비정규직 우대임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우리 사회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

되고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지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3.4%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국민연금(정규 87.9%, 비정규직 37.1%)·건강보험(정규 95.0%, 비정규직 53.2%) 고용보험(정규 91.8%, 비정규직 53.7%) 등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 전반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지속되면서 고용 불안과 저임금이 결합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근로자 간 계층 분리와 사회적 갈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 전반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지속되면서

김지사, 장수·무주 ‘광폭 행정’ 스마트팜·방산 전북 미래축 점검

장수 스마트팜·기본소득 현장 방문
 청년농·지역경제순환변화 확인
 무주 현대로템 투자협약 이행 점검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17일 장수 임대형 스마트팜과 농어촌 기본소득 가맹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폈다.

또 무주군을 찾아 지난 3월 체결된 전북자치도-무주군-현대로템(주) 투자협약(MOU)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행정은 전북자치도의 핵심 과제인 농생명 산업의 혁신과 대규모 첨단 방산기업 유치에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도민 및 기업과 소통하며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먼저 장수군에 위치한 임대형 스마트팜 현장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청년 농업인들이 입주해 안정적으로 영농을 시작하고 농촌지역으로의 청년 유입 기반을 다지는 핵심 거점.

도내 스마트팜 면적은 2022년 744ha에서 2024년 1,110ha로 확대, 시설은실 대비 21% 수준에 이르렀으며 전국 평균 15%를 상회하고 있다.

장수군의 경우 2024년 기준 스마트팜 보급면적은 48ha로 전체 시설면적 195ha 대비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도는 양적 확대를 넘어 청년농과 조부 농업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팜부터 대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첨단 수직농장 등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농업 모델을 통해 질적 성장도 도모

고용 불안과 저임금이 결합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근로자 간 계층 분리와 사회적 갈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제도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향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과 열악한 근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격차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업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하고 있다.

이어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가맹점으로 등록된 신규 창업 점포와 인근 상권을 둘러보며, 기본소득 지급 이후 가맹점이 눈에 띄게 늘고 주민들의 소비가 활발히 순환되면서 상권에 활력이 더해지는 변화를 확인했다.

장수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이후 인구 유입 645명을 기록했으며, 기본소득 연계 서비스 구축을 통해 식품사막화 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한 이동장터를 운영하고, 지역 농산물 사용 가맹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역 내 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스마트 농업 확산과 농어촌 소득 정책을 연계해 청년 유입-소득 안정-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전북형 농생명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대로템(주) 투자예정지인 무주군 적상면 일원을 방문해 무주군, 현대로템과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현대로템 측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약 3,000억 원을 투자해 종합 항공우주 생산기지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투자는 단순한 제조 시설을 넘어 ‘연구개발(R&D)-시제품 제작-시험 및 검증-양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R&D 중심 기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술의 국산화와 130명 직접 고용 창출은 물론, 협력업체의 연쇄 입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장정철 기자



도, 새만금 에너지센터 기업 유치...신재생 중심지 육성

내달 8일까지 입주기업 공모 진행 에너지 연관 산업 기업·기관 대상 심의 거쳐 선정 최대 7년 입주 가능 기술컨설팅·사업화 등 종합 지원

전북도는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신재생에너지 혁신 거점인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할 기업과 기관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연구 개발과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기술 컨설팅과 제품 상용화 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기업의 성장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2024년 7월 개소한 센터는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1층 전시공간과 휴게실, 2층 회의실 및 구내식당, 3층 운영 사무실과 세미나실, 4-5층 입주기업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존 연구개발업(M70)과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 분야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및 연관 산업 기업·기관이다. 입주기업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입주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최대 7년간 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

특히 센터가 위치한 새만금 2공구 일대에는 수상태양광 종합평가센터와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등 관련 인프라가 집중돼 있어, 기업 간 협력과 기술 실증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도는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 기업을 선별해 입주시키고, 기업 간 협업과 시너지 창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육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는 에너지 특화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산업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며 "유망한 에너지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 모집 및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완주군>

전북도·완주군,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 시동

사전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 수소금융인프라구축방안 제시

완주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7일 군청 4층 전략회의실에서 '국제 수소거래소 전북도(완주군) 설립 사전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세계 수소 유통 질서 선점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다.

이날 보고회는 이종훈 군수 권한 대행과 배주현 전북도 청정에너지 수소가장 등이 참석해 탄소 중립과 에너지 체계 대전환 시대에 청정 수소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세계적 유통 질서 선점을 위한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용역을 수행한 삼일회계법인은 정부가 「수소 및 수소 화합물 사업법」 제정을 통해 수소 거래소 지정 금융 중심지와 연계한 수소 금융 상품 개발 및 정책 금융 체계 구축 등 수소 금융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수소 거래 실증 거점(테스트 베드)을 운영해 거래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은 원유가 국

제 원유 거래소를 통해 위험 분산(리스크 헤지) 기능을 강화하고 기준 가격을 형성함으로써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해 온 사례에 주목했다.

수소 역시 거래소 중심의 시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이번 보고회에서 강조됐다.

합소한 국토와 자원 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외국 기업 친화적 투자 환경을 조성해 세계 3대 오일 허브로 성장한 싱가포르의 사례를 완주군이 나아갈 이정표로 제시됐다. 싱가포르의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세계적 유통 질서 선점을 위한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완주군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더 정부가 「수소 및 수소 화합물 사업법」 제정을 통해 수소 거래소 지정 수소 가격 지표 형성과 유통 질서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종훈 군수 권한대행은 "현대차 그룹의 새만금 200MW급 수전해 구축 계획과 연계해 생산되는 청정수소의 유통·거래 실적(트래드레코드)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정부 지정 공모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한국갤럽 "국힘 지지율 다시 10%대로 추락"

민주 48%·국힘 19% 격차 확대 중도층 민심도 여당 기울어 이대통령 국정평가 66% 긍정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정당지지율이 다시 10% 후반부로 추락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지지난주 18%, 포인트에서 지난 주에 20%포인트로 올라섰으나 이번주에 다시 10% 선으로 하락한 것이다.

지난 17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지지하는 정당을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19%,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당 각각 2%,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6%다.

민주당은 지난 주에 현 정부 출범 후 지지도 최고치를 유지했으나 국민의힘은 2월 초 25%에서 4월 초 18%(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까지 하락하는 등 현 정부 출범 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작년 8월 중순부터 올해 1월까지의 민주당 지지도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초중반 구도였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9%가 더불어민주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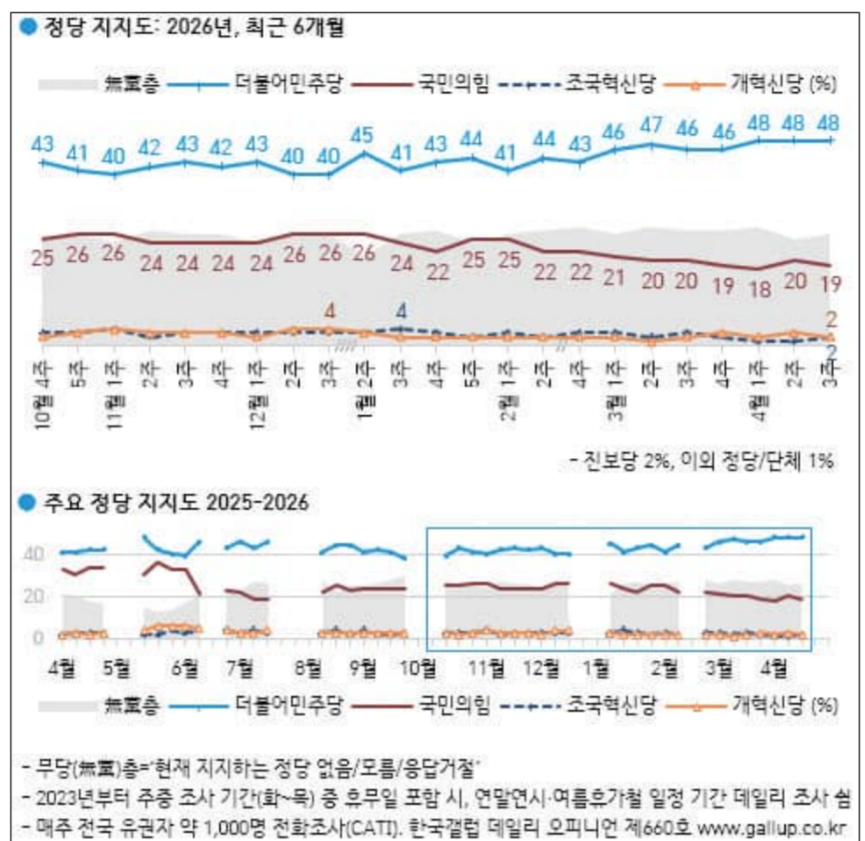
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1%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12%,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4%다.

또 1,000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묻은 결과(2점 척도, 재질문 1회), 66%가 긍정 평가했고 26%는 부정 평가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에서 90% 내외, 부정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61%)에 많다. 중도층은 70%가 긍정적, 23%가 부정적이며 보수층은 긍정(43%)·부정(50%) 비등하다. 연령별 직무 긍정률은 40·50대에서 약 80%, 20대에서 45%로 가장 낮다.

오는 6.3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의견은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5%,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28%로 나타났다. 양론 격차는 2주 전과 다름없으며, 작년 10월 3%포인트에서 올해 1월 10%포인트, 4월 17%포인트로 커졌다.

성향 진보층 73%가 여당 승리, 보수층 57%는 야당 승리를 기대했다. 중도층은



<한국갤럽> 야당(24%)보다 여당(47%) 쪽으로 기울다. 제9회 지방선거를 한 달 반가량 앞두고 주요 지역 후보군이 압축되고 있으나 유권자 넷 중 한 명(26%), 적지 않은 수가 의견 유보 상태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대한민국 축제엑스포 참가...14개 시군 관광 세일즈

대표 관광·축제 통합 홍보관 운영 여행상품 상담·B2B 마케팅 병행

전북도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축제엑스포'에 참가해 전북 관광 홍보관을 운영, 축제와 관광을 연계한 현장 마케팅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축제엑스포는 전국 지자체와 관광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축제 특화 박람회로, 지역 대표 축제와 관광자

원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경쟁이 펼쳐지는 자리다.

도는 이번 행사에서 '축제를 통한 관광 유입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 도내 14개 시·군의 대표 관광지와 계절별 축제를 연계한 통합 홍보에 나섰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관람객 참여형 콘텐츠를 강화해 현장에서 전북 관광에 대한 관심과 방문 의지를 자연스럽게 끌어냈다.

홍보관에서는 SNS 연계 이벤트, 관광

지 퀴즈, 방명록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가 운영됐으며, 참여자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됐다. 또한 전북 사랑도민중 홍보를 병행해 제도 안내와 가입 유도에도 나섰다.

이와 함께 시·군별 특색을 살린 공동 이벤트도 운영해 전북 관광자원의 매력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관람객 유입 확대를 모색했다.

현장에는 전담여행사가 배치돼 관광 상품 상담과 세일즈 활동을 동시에 진

행했으며, 관련 기관 및 업체와의 B2B 상담도 병행했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한민국 축제엑스포는 지역 축제를 중심으로 관광 경쟁력을 선보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전북만의 차별화된 축제와 관광 콘텐츠를 적극 홍보해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4월 말 '올댓트래블 2026', 5월 '한국여행 엑스포(대만 타



<사진=전북도>

이베이) 등 국내외 박람회에도 잇따라 참여해 관광 홍보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4월20일 장애인의 날

함께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 재활의욕을 응원하는 기념일입니다

전주시 교통비지원 확대 K-패스 83.3% 환급

9월까지 한시적 확대 시민 체감형 교통비 지원 강화

전주시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의한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 'K-패스' 환급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전주시의 이번 개편은 환급률은 높이고 환급 기준금액은 낮춰 시민들이 더 적은 부담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기본형(정률형) 일반 시간대에

는 기존 환급률이 그대로 적용되며 시차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환급률이 기존보다 30%포인트 상승된다. 이에 시차 출퇴근 시간대 기준 환급률은 일반 50%, 청년·2자녀·노인 60%, 3자녀 80%, 저소득층은 최대 83.3%까지 확대된다. 시차 출퇴근 추가 환급 적용 시간은 5시 30분부터 6시 30분, 9시부터 10시, 16시부터 17시, 19시부터 20시까지다. 이와 함께 정액형 상품인 '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 금액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다. 기존 5만5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청년·2자녀·노인은 5만원에서 2만3000원으로, 3자녀·저소득층은 4만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모두의 카드'는 한 달 교통비 지출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청년이 한 달 대중교통비로 5만원을 지출한 경우, 기준 금액인 2만3000원만 부담하고 초과한 2만7000원은 환급받게 된다. 이번 확대 적용 기간은 이달부터 9월 이용분까지 6개월간이며, 4월 이용분

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용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다. 만 19세 이상 전주시민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유형에 따라 다음 달에 일정 비율 또는 초과 사용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K-패스 카드를 아직 발급받지 않은 시민은 가까운 은행 등 참여 금융기관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 또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효자어울림복합복지관 건립 이상 無

문화·경제 공익가치 창출 복권기금 7억3100만원 투입

전주시는 전주효자어울림복합복지관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효자어울림복합복지관은 효자동2가 1240-3번지 일대 부지면적 3799㎡에 연면적 7183㎡,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특히 효자어울림복합복지관은 전주 서부권 주민들의 복지수요 대응에 따른 것으로 △교육 △돌봄 △문화 △여가 공간 등을 종합적 제공을 위해서다. 복지관에는 △지하 2층 주차장 △지하 1층 경로식당·북카페·주차장 △지상 1-2층 노인복지관 △3층 시니어클럽 △

4-5층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들어선다. 관련해 시는 효자어울림복합복지관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문화·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26년 복권기금 신청사업 7억3100만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된 복권기금을 투입해 효자어울림복합복지관 외·내부 인테

리어 등 마감공사 및 조경 등 부대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복합복지관은 오는 5월 준공을 목표로 개관 후 효자4동과 효자5동, 혁신도시 등 서부권 거주 세대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민 정서 안정 '마음 온(ON) 편의점' 가동

생활권 마음돌봄 학습거점 운영 시, 8개 '마음 온 편의점' 운영기관 비대면 협약 체결

전주시가 시민 정서 안정과 예방 중심 생활권 마음돌봄 학습 거점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17일 '2026년 전주형 평생학습 마음 온(ON) 편의점' 운영 8개 기관과 서면 협약을 체결했다. '마음 온(ON) 편의점' 사업은 시민 누구나 가까운 생활권에서 참여할 수 있는 학습 기반 정신건강 프로그램 거점을 조

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협약을 통해 총 8개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협약은 공공부문 선도적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대면 행사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서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유아생활문화센터는 한글 서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후생활문화센터와 평화사회복지관은 판소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또, 솔내청소년센터와 청아나루작은도서관은 바둑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선녀머뭉합사회복지관과 삼천생활문화센터, 서원노인복지관은 밸런스워킹PT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시가 제시한 프로그램을 주 1회, 총 12회 과정의 소규모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민의 정서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 자기 회복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강사로 지원과 통합 홍보를 통해 운영기관 부담을 줄이며 학습매너지 운영 및 성과 공유를 통해 사업의 질을 지

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 학습과 문화 활동을 통해 마음건강을 사전에 관리하는 예방 중심 모델을 확립하고, 지역 학습공간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기반 정신건강 체계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마음 온(ON) 편의점'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각 프로그램 운영 해당 지역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안전 우려지역 현장 점검 나서

6월 19일까지 집중안전점검 추진

전주시가 시민안전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선제적 안전 관리에 들어선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7일 '건원로 급경사지 비탈면 정비사업 현장'과 '진기들 유수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실시했

다. 합동 점검반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 대비한 시설물 안전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등 비상시 신속한 주민 대피가 이뤄지는지 가능성을 확인했다. 관련해 시는 오는 6월 19일까지 관내 안전취약계층·민생중심시설·노후 및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추진을 이어갈 계획이

다. 점검 대상은 공장과 전통시장, 숙박시설, 복지시설 등 20개 분야 총 109개소이다. 특히 시는 집중안전점검 기간 중 시민이 직접 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점검 신청은 오는 6월 1일까지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각 동 주민센터를 활용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점검 대상은 공장과 전통시장, 숙박시설, 복지시설 등 20개 분야 총 109개소이다. 특히 시는 집중안전점검 기간 중 시민이 직접 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점검 신청은 오는 6월 1일까지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각 동 주민센터를 활용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새마을회 비상경제 대응 에너지 절약 교육 실시

에너지 절약 캠페인 활동 병행

전북새마을회(회장 이상수)와 전주시새마을회(회장 송병용)는 지난 17일 '비상경제 대응 에너지절약 실천행사 및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고유가 및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중심 실천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북새마을회 및 전주시새마을회 회원과 대학새마을동아리 임원, 청년회원, 회장단 등 약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에너지 절약 정책 및 추진 방향 △생활 속 전기·가스·유류 절감 실천 방법 △탄소중립 실현 등이다. 참여자들은 차량 2부제 및 5부제 운영, 공용차량 운행 제한, 사무실 에너지 절감, 대기전력 차단 등 자체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계획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범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캠페인 활동도 병행됐다. 한편 전북새마을회와 전주시새마을회는 탄소중립 실천 위한 환경정화활동과 나눔봉사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에도 꾸준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청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특별 단속 추진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화물차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을 지난 17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6주간 추진한다.

특히 지난 16일 완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초과한 화물차 추돌 사고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화물 관련 사고가 이어져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6주간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순찰대와 경찰관 기동대, 광역예방순찰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건협 전북지부, 전주소년원서 '사회공헌 건강검진' 시행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본부장 엄진영)는 지난 17일 전주소년원에서 '상반기 법무부 소년원 사회공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최근 농번기와 봄 행락철을 맞아 급증하고 있는 교통 사망사고를 억제하기 위해 가용 경력을 총동원한 가시적 교통안전 활동 강화 대책을 전격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화물차 안전 관리와 더불어 도로 위 경찰관의 노출을 극대화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전북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도내에서 연달아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화물차 교통사고 또한 작년 대비 증가했다.

이제영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화물차 범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건강검진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날 검진에서는 기초 신체 계측을 포함해 고지혈증, 간 기능, 신장 기능 검사 등 총 37개 항목에 대한 정밀 검사가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경찰서,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원 포상

약 1천만원 규모 피해 막아 칭찬 범죄 조직에 속아 금전을 인출하려던 상황이었으며, 은행원 A씨의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은행직원 A씨의 설득 끝에 B씨가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서 약 1천만원 규모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범죄 예방에 기여한 시민과 관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포상하고,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당시 고객 B씨는 수사기관을 사 /정소민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최용철)는 17일 전주시민기록관을 방문에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사진=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 '전주시민기록관' 현장 점검

행정위원회 전주시민기록관 방문 전주 역사적 기록 자산 활성화 논의 또 1층 전시실과 주차장의 액자 전시 공간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실감미디어관, 보존서고 등을 둘러보고 시설의 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최용철 위원장은 "시민들이 기증한 기록물은 전주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소중한 미래 자산"이라며 "시민기록관이 전주의 기억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새로운 기록 문화를 창출하는 거점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환경청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점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 편성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20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사고영향 범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수 사업장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 △사고 이력이 있는 사업장 등 40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취급시설(저장탱크·배관·플랜지 등) 관리 기준 준수 및 피해저감시설 적정 유지 여부 △고인화성·부식성 물질 등 의 적정 취급 여부 △작업자 보호구 착용 여부 등 화학사고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한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전문 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하고, 첨단장비(조음과 두께측정기, 열화상 카메라, 휴대용 가스측정기)를 활용하여 보다 정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취급 및 피해저감 시설 등의 관리가 미흡한 상황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선을 명령했고 시설 노후화가 심하여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수시검사 등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소방본부 사칭 '리튬이온 소화기 강매' 사기 기승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시설 구매를 강요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미끼로 금전을 갈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최근 사례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위취급소 등 위험물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서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리튬이온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이어 특정 업체를 통해 구매하면 "소방본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속여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 을 사용했다. 특히 소방본부 명의의 '리튬이온 소화기 설치 안내' 공문을 정교하게 위·변조해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 실제로 전북 무주군에서는 약 3850만원의 피해가 발생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피해 예방 요령으로는 △소방관서 사칭 전화 시 소속·성명 확인 후 해당 소방서에 사실 여부 확인 △소화기 구매 강요·보조금 언급 시 즉시 거절 △의심스러운 공문 수신 시 관할 소방서 대응예방과에 문의 등이다. /정소민 기자

경진원, 기업 '수출 나침반' 역할 톡톡

해외 거점 네트워크 활용... 통상 환경 변화 대응 전략 제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지난 16일 도내 수출기업 임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제1차 비즈니스 인사이트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높은 효용도를 얻은 데 이어 올해는 정보의 공신력을 강화한 이번 설명회는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실

시간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해외통상거점센터의 경진원 소속 현지 상주 인력이 축적한 공공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획·운영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강연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종제 텔리사무소장(인도 담당)과 중소기업진흥공단(KOSMES) 남경문 하노이GBC 소장(베트남 담당)과 같은 현지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생생한 실무 데이터를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주요국 통상 정책 변화와 호르무즈 해협 분쟁, 이란-이스라엘 갈등에 따른 유가 상승 등 지

정학적 리스크가 집중 논의됐다.

참가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 상황 속에서 전략적 요충지인 베트남과 거대 시장인 인도를 연계한 시장 선점 전략을 구체화했다.

인도 세션에서는 세계 주요국과의 경제 지표 비교를 통한 중단기 산업 전망이 다뤄졌다. 특히 중동 전쟁의 파급 효과, 미국의 통상 압박, 인도의 FTA 동향 및 대중국 정책 변화 등 비즈니스 핵심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이어지는 베트남 세션에서는 고부가 가치 산업제 및 기능성 식품 트렌드를 개괄하며 현지 진출 가능성을 점검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상 간 경제 협력이 더욱 밀접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진원은 도내 기업의 실질적인 진출 활로를 모색하고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시기에 해외 거점 센터가 도내 기업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인도 시장이 전북 기업의 핵심 수출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농협 '친환경자원순환협의회' 개최

지방이양 대응 논의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은 지난 16일 농협전북본부에서 2026년 친환경자원순환협의회(회장 김기동, 회원농협조합장)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공동퇴비제조장을 운영하는 농축협 조합장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사업결산보고 △2026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남원축협 신규회원 가입승인 등 안건을 처리하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관련 대응 방안과 지속 가능 농업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을 집중 논의 했다.

김기동 회장은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지방이양 후 국고보전이 종료되면 유기질비료지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국고보전 기간 추가 연장관련 지방세법 개정 발의는 농업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훈본부장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유예를 위한 지속적인 농정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농심천심(農心天心) 정신을 바탕으로 친환경 농업확대와 농정활동을 강화해 농업인의 실익 증진과 지속가능 농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우기대비 건설현장 점검

'안전·품질·환경' 중점 151개 현장 특별 지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본격적인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관내 주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섰다.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2일간 생산기반사업(농촌용수,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과 지역개발사업(일반농산어촌, 취약지역개조) 등 관내 151여개 건설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안전·품질·환경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잦아지는 국지성 호우와 대형 태풍에 대비해 건설현장의 인명 피해를 막고, 수해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품질 저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지역본부는 이번 점검 기간동안 안전, 품질, 환경 등 3대 핵심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먼저 안전분야에서는 집중호우 시 붕괴 위험이 높은 굴착면 사면보호 조치 상태와 가설 구조물의 결속력 등을 확인하고, 특히 강풍에 대비한 외부 비계 고정상태를 정밀 점검하며,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구간의 양수기 비치 여부와 비상 발전기 가동 상태를 점검한다.

품질분야에서는 잦은 비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콘크리트 타설 품질저하 방지에 주력한다.

우천시 타설 금지 원칙 준수 여부와 노출된 철근 부식 방지 조치 등을 중점 확인해 구조적 결함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환경분야에서는 토사 유출로 인한 농경지 및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 침사지 관리와 가설 배수로 정비상태를 점검하



고, 또한 현장 내 폐기물 적치장소의 덮개 설치 여부 등 환경범규 준수 실태도 병행 확인한다.

전북지역본부장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위험 요인을 뿌

전북 건설행,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간담회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17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과 지역건설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공사물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황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건축정책과장 등 교통건설분야 정책 책임자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건설산업 발전방안과 중동사태에 따른 애로사항 및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재철 회장은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지역 건설산업이 수익성이 악화돼 자재·장비 등 연관산업까지 심각한 위기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북 경제에서 지역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만큼,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을 위해 고속도로·국가철도망·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 계획 반영,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행정절차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를 함께한 각 단체에서도 지역 건설사업 활력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개선사항을 내놓았는데 △전문건설협회는 새만금 개발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적정 공사비 현실화 △기계설비협회는 자체비 상승 대응 및 경영부담 완화 금융지원 △주택건설협회에서는 지방아파트 매입임대 등록 재시행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민간 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허용 등을 건의했다.

김윤덕 장관은 참여 건설단체들의 건의에 공감을 표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안들을 신중히 검토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디자인센터 '디자인 실무 점프업' 아카데미 운영

최신 디자인 트렌드 반영 실무 역량 강화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백) 전북디자인센터(센터장 유종길)는 도내 디자인기업 및 예비 디자이너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디자인 실무 점프업 아카데미(1차)'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교육은 최신 디자인 트렌드와 기술을 반영한 실무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현장 적용 가능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아카데미는 오는 25일 익산 원광대학교 프라임관 2층 전산실에서 진행된다.

강의는 디지털융합교육원 지도교수 권혁용 강사가 맡는다.

교육 주제는 '생성형 AI로 완성하는 디자인 혁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부터 실무 시각화까지'로, AI 도구를 활용한 입문·초급 디자인 업무 적용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 대상은 도내 디자인기업 제작자(대표·실무자), 디자인 관련학과 대학생(졸업예정 포함), 관심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관계자 등이다.

모집 인원은 20~30명 내외로 운영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나, ChatGPT·Midjourney 등 AI 프로그램 구독료는 개인 부담이다.

한편 전북디자인센터는 단기 특강(아

카데미)과 생성형 AI·디지털 디자인 집중교육(워크숍), 그리고 디자인데이 전시를 통한 성과 확산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해 교육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유종길 센터장은 "단발성 교육이 아닌, 성과 활용까지 이어지는 디자인 실무 연계 교육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해 디자인 디자인 가치 향상과 역량 육성 강화를 위한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은 전북디자인센터 홈페이지(https://jbdc.jbtp.or.kr/) -알림마당-교육신청을 통해 온라인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는다.

/정소민 기자



<사진=전북테크노파크>

농진청 '국산 밀 제과·제빵 아이디어 공모' 성료

제과·제빵 기능장 50명 우리 맛·정서 표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와 함께 지난 16일 서울 코엑스 전시장 3층 디(0)홀에서 '제10회 국산 밀 활용 제과·제빵 아이디어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전은 '2026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 개막 특별행사로 진행돼 업계 관계자와 관람객의 관심을 모았다.

올해 10회째를 맞은 공모전은 '케이(K)-푸드, 빵과 과자(맛으로 전하는 한국 문화)'를 주제로 치러졌다.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 지회 추천을 받은 기능장 50명(제과 22, 제빵 28)은 국산 밀가루로 우리나라의 맛과 정서를 표현한 다양한 제과·제빵 제품을 선보였다.

참가자는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국산 밀 품종 '황금알', '백강', '고소'로 만든 밀가루를 사전에 제공받았다.

심사 결과, 제과 부문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김진국 씨(베이커리 차차 경기 성남)가 받았다. 차초, 메밀로 만든 식빵과 시금치가 들어간 시금치 시오(소금빵), 비트 브리오슈, 버섯브로콜리 빵 등을 출품했다.

이 외 금상(농촌진흥청장상) 4점, 은상(한국제과기능장협회장상) 6점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출품자들은 국산 밀가루를 주재료로 밥, 수수, 녹두, 콩, 감태 등 한국적 재료를 적절히 가미한 점이 돋보여 주제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공모전은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매력도 △한국 문화 요소 반영 정도 △국산 재료 활용과 조화 등을 기준으로 출품작을 심사했다.

국내 제과·제빵 기능장이 만든 제품이 케이(K)-푸드로 입지를 다지고 확장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평가했다.

산식품부장관상)은 상주곶감, 공주 밤, 수수, 녹두, 감태 등을 이용한 휘낭시에, 구운과자 등을 선보인 이진복 씨(르안테르센과자점, 대구광역시)가 수상했다.

제빵 부문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김진국 씨(베이커리 차차 경기 성남)가 받았다. 차초, 메밀로 만든 식빵과 시금치가 들어간 시금치 시오(소금빵), 비트 브리오슈, 버섯브로콜리 빵 등을 출품했다.

이 외 금상(농촌진흥청장상) 4점, 은상(한국제과기능장협회장상) 6점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출품자들은 국산 밀가루를 주재료로 밥, 수수, 녹두, 콩, 감태 등 한국적 재료를 적절히 가미한 점이 돋보여 주제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공모전은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매력도 △한국 문화 요소 반영 정도 △국산 재료 활용과 조화 등을 기준으로 출품작을 심사했다.

국내 제과·제빵 기능장이 만든 제품이 케이(K)-푸드로 입지를 다지고 확장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평가했다.



제빵용 밀 '황금알'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글루텐 조성이 우수해 빵 부피와 조직형성이 좋은 품종이다.

여기에 '백강'을 함께 활용하면 제빵 적성이 더욱 높아진다. 제과용 밀 '고소'는 제품 퍼짐성과 균열 특성이 우수하다.

농촌진흥청은 공모전 수상작 제조법(레시피)을 추후 책으로 펴낼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장재기 팀장은 "기능장 협회와 협력을 지속해 국산 밀 소비 저변을 확대하고, 국산 밀 빵·과자 소비 촉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농식품부 'K-푸드 창업사관학교' 가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2025년 12월 5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을 방문해 청년 식품기업 창업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식품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산업이라면, 창업 인프라 확충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장 간담회, 전문가 협의를 통해 식품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제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첫 출발점으로 'K-푸드 창업사관학교'를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입교식은 K-푸드 창업사관학교의 첫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식품 분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창업은 쉽지 않지만 도전 자체가 큰 가치"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계적인 입맛을 사로잡는 K-푸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 "여러분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고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1기 K-푸드 창업사관학교 교육생 모집은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86명이 지원했다.

이 중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성장가능성, 창업의지,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등 대면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50팀이 선발됐다.

선발된 교육생은 앞으로 1년 동안 아이디어 발굴부터, 제품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까지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농식품부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 이외에도 지역의 젊은 인재가 식품기업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역거점별 식품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 청년 창업캠프 등을 통해 50팀을 추가로 육성한다. 올해부터 매년 청년 식품기업 100개 사를 육성하여 K-푸드 산업의 첫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식품 분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K-푸드는 K-컬처와 K-관광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청년 창업의 성공모델이 되어 지역 경제활력 일차로 창출과 국가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부안예술회관, 재단 주관 공모 '최다 선정'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등 3개 분야...
1억 4200만원 확보**

부안군은 부안예술회관이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 문화예술 공모사업에서 도내 최다 선정과 함께 최고액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며 도내 문화예술의 중심 기관으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부안예술회관은 최근 발표된 재단 주

관 공모사업 결과에서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거리극축제 노상놀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등 3개 분야에 연이어 선정됐다.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사업에는 군이 전통예술원 타무의 작품 '수성담, 개양할미의 너른 품'으로 선정돼 도비 4200만원의 지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역 고유의 전통자원을 활용한 공연 콘텐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또 거리극축제 노상놀이 사업에서는 포스아트컴퍼니의 '부안 개양할미 퍼레이드'가 선정되며 2000만원의 사업비

를 확보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거리예술 콘텐츠로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는 부안예술회관과 상주단체 콘사노가 도비 8000만원을 확보하며 공연장과 예술단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공연 생태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사업 선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지역 전통문화 자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공연과 축제, 상주단체 육성까지 아우르는 입체적인 문화예술 생태계

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부안예술회관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다수 선정은 지역 예술인과 단체, 군민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부안만의 문화 자산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로 지역문화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예술회관은 향후 선정된 사업들을 연계해 지역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예술 지역으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온봉기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100편의 영화, 100개의 시선"

오는 29일~5월 8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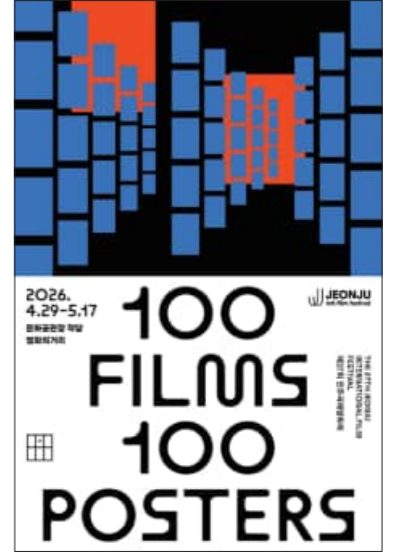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국내외 영화계와 시각디자인 분야에서 주목받아 온 '100 Films 100 Posters' 프로그램 일정을 공개했다.

주제사인 '제12회 100 Films 100 Posters'를 통해서도 전주국제영화제와 100명(팀) 그래픽 디자이너가 협업해 상영작 100편의 포스터를 선보인다. 전시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문화공관장 작당 문화플래트에서 개최된다.

영화의거리에서도 오는 29일부터 내달 23일까지 현수막 포스터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영화와 디자인의 교차점을 탐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주제 행사 '살롱'을 운영하고 있다. '살롱 100 Films 100 Posters'는 '시네마타운'을 주제로 극장의 시각문화를 다루며, 주제전과 라운드테이블로 구성된다.

주제전을 통해서도 현시점의 국내 극장 문화를 사진과 영상으로 살펴본다. 김선익, 전소영, 성의석, 현다혜 등 4명의 사진가가 오늘날 국내 영화관 안팎을 독자적인 시선으로 기록한 작업이 전시된다. 영상으로는 대우영화발굴단의 '폐허의 아이들'이 소개된다. 이 작품은 1990년대 대구 시네마테크의 흔적을 다루며, 과거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영화관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내달 1일 두 차례 열리는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시네마틱한 경험'을 이끄는 디자인의 역할에 주목한다. 도심 속 시각문화의 한 축인 극장을



<사진=전주국제영화제>

둘러싼 디자인 행위를 매개로, 시네마틱한 경험을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본다. '디자이너, 영화관을 디자인하다' 세션에는 김은지 디자이너와 최지우 디자이너, 현준혁 디자이너가 참여한다. '장소 만들기로서의 영화관 디자인' 세션이 마련되며 김상민 대표, 박예원 큐레이터, 이한재 대표가 자리한다. 포스터 디자인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디자이너를 초빙하는 '포스터 디자인 워크숍'도 진행된다. 올해 워크숍은 김성구 디자이너가 강사로 참여하며, 신청 방법은 추후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100 Films 100 Posters의 자세한 프로그램 및 일정은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https://www.jeonjufest.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영화의거리 및 전주시 일대에서 개최된다.

/전북타임스 문화부

학교폭력 차단... '언어문화 실천 서포터즈' 운영

**전북교육청, 초·중·고
17팀 선정... 캠페인 전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내 언어습관 개선을 통해 학교폭력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언어문화 실천 학생 서포터즈' 17개 팀을 선정해 운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사가 주도하는 일방향이 아닌 학생 스스로 존중과 배려의 의사소통 문화를 기획하고 확산하도록 돕는 학생 참여 중심 프로그램이다.

각 서포터즈 팀은 5명 이상의 재학생과 지도교사 1명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교내 방송 및 홍보, 학생 대상 언어습관 자가 진단, 문화예술 기반 언어순화 창작 활동 등 각 학교 여건에 맞는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다.

올해 서포터즈단으로 선정된 학교 단위 동아리는 총 17개 팀이다.

초등학교 부문은 전주송천초(따옴표), 새만금초(새만금운새미로), 이리고현초(올바르미), 김제김산초(따따너울가자), 백운초(백운말구름서포터즈), 부안초(말빛서포터즈) 등 6개교가 참

여한다.

중학교 부문은 전주신흥중(굿바이브), 군산동산중(평화지킴이), 군산동원중(동원), 이리영등중(영등말꽃피움단), 김제중(은언어실천학생회), 호남중(스타워치), 왕신여자중(마음온도) 등 7개교를 선정했다.

고등학교 부문은 양현고(우리사이따옴표), 만경여자고(말랑말랑), 남원국악예술고(도담도담), 한국기술부사관고(너와내가따뜻한하마디) 등 4개교다.

전북교육청은 선정된 각 팀에 동아리 자체 운영비를 지급하고, 담당 교사 협의 정례회 및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제공해 실질적인 교내 캠페인이 이뤄지도록 돕는다.

또한 1학교 1인성 브랜드 지정, 학교폭력 예방교육 주간 운영 등 후속 행정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교내 폭력을 예방하고 관계 중심의 문화를 정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며 "학생 자치 중심의 예방 정책이 일선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행정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전주홍산초 정책 운영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전주홍산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원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빈곤,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발굴해 지원하는 전북교육청의 주요 정책이다.

전주홍산초는 해당 정책의 선도학교 지정 2년 차를 맞아 교내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전북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로서 전 교직원에게 학생을 관찰하고 지원하는 '홍길동 통합지원팀'을 신설해 가동 중이다.

이와 함께 봉사 동아리 등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대상 학생을 관리한다.



<사진=전북교육청>

전북교육청은 이날 현장 탐방을 통해 수렴한 실무진의 의견을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연

계한 통합지원 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익산목천지구파크골프장' 21일 재개장... 시설·편의향상

익산시는 시민들의 파크골프 수요에 맞춰 '목천지구 파크골프장'의 개장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은 인근에서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진행 중으로, 안전성을 고려해 기존 일정대로 오는 24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시는 휴장 기간 최상의 구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토 작업과 지면 정비, 잔디 보호 매트 설치 등 전반적인 시설 개선을 진행했다.

시는 구장 재개장 시점에 맞춰 카카오톡 채널 '익산시 파크골프장'도 본격 운영한다. 시민들은 채널 추가를 통해 임시 휴장 등 실시간으로 구장 소식을 접할 수 있어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1시민 1미술'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가 시민 누구나 미술을 배우며 예술가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는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와 함께 오늘부터 내달 6일까지 '1시민 1미술'에 참여할 25팀을 모집한다.

1시민 1미술은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 미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개설된 강좌는 △수채화 △어반스케치 △오일파스텔 △민화 등 4개 분야 입문 과정이다. 수업은 미술회관과 경로당 등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한국미술협회 익산지부

소속 중견 작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익산 시민으로,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 가족·동료·지인 등 5~10명과 팀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팀은 5월부터 8월까지 총 12회 강습을 받을 수 있고, 수업 종료 후에는 전시회를 통해 완성한 작품을 시민들과 공유한다.

신청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한국미술협회 익산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중년 맞춤형 갱년기 극복 프로그램 운영

정읍시보건소가 40~60대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중년 생활을 돕기 위해 다음 달 1일까지 '아름다운 4060 갱년기 건강교실' 2기 참여자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내달 4일부터 6월 15일까지 매주 월·수·목요일 보건소 교육실 등에서 진행된다. 갱년기에 겪기 쉬운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슬기롭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맞춤형 과정으로 꾸려졌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기술훈 체조와 건강 체조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우울감 해소와 스트레스 완화를 돕기 위해 워킹 치료, 향기 요법(아로마테라피), 차 문화 체험 등 몸과 마음을 다독이는 치유(힐링) 프로그램이 알차게 병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갱년기 증상을 원활하게 완화하고 건강을 한층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대한민국 지도공원' 주민참여형 명소로 조성

군산시는 대야면 만경강변에 위치한 '대한민국 지도공원'을 주민과 함께 가꾸는 참여형 명소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만경강 대한민국 지도공원'은 한반도 지형을 본떠 조성된 연꽃공원으로, 그동안 활용과 관리가 다소 미흡했으나 최근 지역 주민과 행정이 함께 공원에 나서며 새로운 지역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대야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체협의회, 자생단체 등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공원 환경 개선과 경관 조성에 힘을 보태는 등, 주민 주도의 지역 명소 조성 사례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군산시는 이러한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공원 내 경관 개선과 환경 정비를 지속 추진해 사계절 볼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지도공원은 주민과 행정이 함께 지역자원을 가꾸어 나가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보안을 통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 개관 노인 복합 문화 거점 기대

익산시 노인들의 권익 향상과 행복한 노후를 책임질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익산시는 지난 17일 대한노인회 익산시 지회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노인회 관계자를 비롯해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존 남중동 회관은 건물이 낡고 협소한 공간으로 늘어남은 노인복지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교통이 편리하고 방문하기 좋은 어양동으로 회관을 신축 이전했다.

총사업비 51억 8,600만 원이 투입된 새 회관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됐다. 특히 사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고 편의시설을 강화한 무장애 설계가 적용됐다.

건물 내부에는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채로운 공간이 조성됐다. 사무실과 회의실은 물론, 다목적 강의실, 편안하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휴게 공간까지 알차게 꾸며졌다.

시는 이곳을 거점으로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 대학 운영, 경로당 활성화 등 노인의 사회참여를 돕는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 단순한 사무 공간을 넘어 정보를 나누고 소통하는 '복합 문화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지역 브랜드 키운다 2(題)

군산시 '수제맥주 도시' 위상 강화

군산시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COEX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맥주박람회'에 참가해 군산맥야와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수제맥주 도시 브랜드를 홍보했다.

이번 박람회는 10여 개국 25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약 3만 명이 방문한 국내 최대 규모의 맥주 전문 전시행사다.

군산시는 국산 양조원료인 군산맥야를 활용한 제품 개발과 스토리 마케팅을 통해 K-수제맥주의 경쟁력과 산업적 가치를 강조했다. 특히 수입 맥야 의존도가 높은 국내 구조 속에서 국산 원료 기반 제품이 지역 산업과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군산맥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서울 강남의 수제맥주 업체

와 원료 공급을 확정했고, 여러 브루어리와 구대 상담도 진행해 유통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주한미군대사관과 협력해 군산맥야와 미국산 홉을 활용한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맥주'를 공동 제작하기로 했다. 해당 맥주는 미국 대사관 독립기념 행사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을 적극 홍보하며 도시브랜드 전략도 강화했다. 축제를 알리고 있거나 경험한 방문객이 많아 대표 수제맥주 축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

박홍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군산은 군산맥야를 기반으로 수제맥주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K-주류산업의 농업적 가치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 로컬브랜드 마켓' 참여 신청

군산시 청년플 창업센터는 군산 지역 창업기업의 오프라인 유통 채널 진입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늘 2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026 군산 로컬브랜드 마켓'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롯데몰 군산점 1층 중앙광장에서 팝업부스 형태로 운영된다. 온라인 중심으로 활동해 온 지역 창업기업에 오프라인 판매 기회와 소비자 접점을 제공하고,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의 시장성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한 홍보를 넘어 창업기업이 오프라인 유통 환경을 직접 경험하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 중심 사업이다. 행사를 통해 참여 기업은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 성

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롯데몰 군산점은 지역 상생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형 유통 채널과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이번 모델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행사에서는 총 4,2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참여 기업들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모집 대상은 군산시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유통·소비재 분야 기창업자 약 13개사이며, 선정 기업에는 제품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전용 팝업부스가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11일까지 군산시 청년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TF 구성

오는 27일부터 지급...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

익산시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익산시는 오는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앞두고,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관계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또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담 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창구'를 운영해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지원 금액은 비수도권인 익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50만 원 △소득하위 70% 15만 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과 지급은 대상자에 따라 1차(4월 27일~5월 8일)와 2차(5월 18일~7월 3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2차는 소득하위 70% 시민과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2차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후에는 요일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기념제' 내달 개막

막바지 점검 돌입... 완성도·상징성 높인다

정읍시가 내달 9일 개막하는 제59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16일 제2차 조직위원회 회의를 열고 행사 전반에 대한 막바지 점검에 돌입했다.

이날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사무실에서 열린 최용길 기념제 조직위원회 주제로 열린 회의에는 동학 관련 단체를 비롯해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 유관 기관 및 단체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념식 운영 계획부터 축하 공연, 주요 프로그램 구성, 안전 관리 대책, 홍보 전략 등 핵심 사안

을 꼼꼼하게 논의했다.

특히 올해 기념제는 다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열리는 만큼, 행사 동선과 현장 운영, 관람객 안전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행사의 완성도와 상징성을 한층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제59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는 내달 9일부터 11일까지 '다시,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자유와 평등, 인간 존엄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행사 기간에는 구민사 갑오선열 제재와 무명 동학농민사 위령제 등 추모 행사를 비롯해 그날의 함성을 재현하는 511 공연(피포먼스), 기념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

쳐진다.

볼거리도 풍성하다. 정읍시 대표 공연인 실내악 연주곡 '용오름'과 참무극 '천명', 기획 공연 '모두의 하늘'을 통해 동학의 정신을 현대적 감각의 공연으로 풀어낸다. 여기에 손태진, 조재즈, 민데이키즈, 경서, 허각 등 인기 가수들이 참여하는 축하 공연이 더해져 축제 분위기를 한껏 띄울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조직위원회 회의를 통해 준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한 만큼,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기념제를 만들겠다"며 "동학농민혁명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고 혁명 도시 정읍의 드높은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집중안전점검 추진체계 정비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30개 시설·119개소 점검

군산시는 지난 17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대비한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본격적인 점검 시행에 앞서 집중안전점검 기간 전 홍보 및 이행사항을 공유하고, 부서별 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집중안전점검 단장인 부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련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2026년 집중안전점검'은 오늘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61일간 실시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된다.

군산시는 올해 총 30개 시설 분야, 11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과 민생 밀집 시설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점검 장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등 점검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다.

김영민 부시장은 "오늘 보고회를 바탕으로 부서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점검 준비에 빈틈이 없도록 해 달라"며 "형식적인 점검을 지양하고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발견된 사항은 즉시 조치하는 등 중앙안전점검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백제왕궁 느린 편지' 이벤트

21일부터 선착순 500명

익산시가 백제왕궁 관람의 여운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익산시 백제왕궁박물관은 익산우체국과 협력해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 '천년 백제왕궁의 느린 편지'를 21일부터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시 관람 후 느린 감성과 생각을 여서에 담아 일정 기간 뒤 받아보는 '느린 우체통' 체험이다. 단순한 관람을 넘어 백제왕궁(왕궁리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정서적 교감을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익산우체국의 고객맞춤형 여서 사업과 연계해 백제왕궁 이미

지를 활용한 여서를 제작·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의미를 더했다.

작성된 여서는 박물관 내 느린 우체통에 투함되며 일정 기간 보관된 후 오는 12월 31일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전시 관람 후 무료로 제공되는 여서를 받아 미래의 자신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작성하고 주소를 기재해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우체국과의 협력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더욱 뜻깊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여행 기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해 천년 백제의 밤과 함께 느린 편지가 주는 여유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농산물 유통 거점 집중안전점검

납세자 편의 제공

정읍시가 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2일 농산물 유통 핵심 거점인 '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인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난 2015년 운영을 시작해 지역 농산물의 선별과 가공, 유통을 도맡고 있는 주요 거점 시설이다. 수박과 토마토를 포함한 30여 개 품목을 취급하며 지난해 251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등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시는 민간 분야별 전문가와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꾸려 점검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 이들은 건축 구조의 안전성부터 전기 설비 상태, 소방 시설 작동 여부 등 시설 전반의 안전 관리 상태를 종합적이고 간간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사전에 꼼꼼히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사진=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 농촌왕진버스 운영

한방·구강 진료 등 진행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지부장 김범석), 농협(조합장 박규석)은 주민 200여명 대상으로 지난 16일 군산 월명종합경기장에서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했다.

이 날 행사에는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 박홍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석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장, 박규석 옥구농협 조합장이 참석했다.

농촌왕진버스는 병의원, 약국 등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한방 진료, 구강 검사, 시력 검사 등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

식품부·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실의 사업이다.

이번 옥산농협 왕진버스에는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다비치 안경 수송점에서 참여해 한방 진료, 구강검진, 검안 및 돋보기 등 의료 서비스를 진행하였다. 함께 참여한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 피어내는 농촌이라는 주제로 꽃과 함께 현장 사진촬영 및 인화 서비스, 뽕 나눔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박규석 조합장은 "앞으로도 농업인과 조합원 모두에게 다양한 복지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야외 승마 체험비 60% 지원

정읍시가 농촌 관광 활성화와 승마 문화 확산을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농촌관광 활성화(의승) 지원사업' 참여자를 본격 모집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장 내에서 진행되던 기존 승마 체험과 달리, 이번 사업은 농어촌형 승마 시설 주변의 야외 코스를 직접 말을 타고 달리는 '의승(야외 승마)' 프로그램이다. 시는 야외에서 활동이 이뤄지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청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기존 능력 인증제 7급 이상, 보유자격이나 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최근 3년(2023-2025년) 이내에 의승

보조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확인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1회 2시간 기준으로 진행되는 의승 체험을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회 체험비 15만원 가운데 국비와 지방비로 60%인 9만원이 지원되며, 참여자는 나머지 40%인 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축산과 관계자는 "이번 의승 지원 사업을 통해 참여자들이 정읍 본연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말과 깊이 교감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해소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부안군, 청렴행정 성과 ‘으뜸’

노력·운영 인정...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사후 인증 심사 ‘적합’

부안군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2025) 사후 인증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며 청렴행정을 위한 지속 노력과 운영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2025) 사후 인증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며 청렴행정을 위한 지속 노력과 운영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또 부패 리스크 관리 강화와 전 직원 청렴교육 확대 등을 통해 군정 전반의 청렴도 향상에 힘써왔다. 이번 심사는 국제표준에 따라 구축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운영 적합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국제표준 인증 심사 자격을 갖춘 외부

인증기관이 주관해 실시됐다. 심사 과정에서는 부패 리스크 식별 및 평가, 개선계획 수립·이행 등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졌으며 군은 인증 범위인 지방자치행정의 기획,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부패방지 경영활동 전반에서 적합성을 인정받았다.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적합 판정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공정한 행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반부패·청렴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군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동’

27일부터 소득 계층별 최대 60만 원 지원

김제시는 중동전쟁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인구감소지역 우대 혜택을 적용해 소득 계층별로 1인당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50만 원을 받게 되며, 2차 지급 대상인 소득하위 70% 일반 시민은 20만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는 이천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7개 부서와 19개 읍면동이 참여하는 전담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예산 편성부터 지급수단 확

보, 시스템 관리, 홍보 및 민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오늘부터 국민비서 홈페이지나 네이버·카카오톡 등 20개 앱에서 신청하면,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 사용기한 등을 국민비서 사전알림 서비스로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시행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27일)은 1-6, 화요일(28일)은 2-7, 수요일(29일)은 3-8, 목요일(30일)은 4-9·5-0, 금요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중

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제공되며, 지역 내 소상공인 업종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위축된 지역 소비를 진작시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고 신속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시는 절대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

굴착기·지게차 등 교육비 50% 지원

고창군 농업기술센터가 ‘2026년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소형특수농기계는 최근 농촌 고령화와 영농 규모화로 인해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일반 농기계와 조작법이 달라 무면허 주행 시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 이번 교육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한 임대용 굴착기와 로더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농업경영 효율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은 이번 사업에 군비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육비의 50%를 지원해 농가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돕는다. 현재까지 939명의 농업인이 면허를 취득했으며, 군은 올해에도 5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면허취득 교육을 지



소형특수농기계 실습교육 장면 <사진=고창군>

원한다. 교육생들은 관련 법규와 안전 수칙에 관한 이론 교육(6시간)과 실제 장비 조작 및 정비 기술을 익히는 실습 교육(6시간) 등 총 12시간의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모든 교육을 수료하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 수요

가 늘어남에 따라 무면허 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개별 지적도 정비사업 추진

국토정보공사와 협약... 이격 등 오류 바로잡아

부안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안지사와 개별(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도면 간 토지경계 불일치와 지적도면의 겹침, 이격 등 지적공부 등록정보의 오류를 바로잡아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별(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3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는 부안읍, 주산면, 동진면, 계화면, 백산면, 위도면 등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축적·도과 간, 행정구역 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측량성과 결 정문제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다양한 공간정보의 활용 기반을 마련해 행정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위성영상, 현황측량 등을 이용한 토지이용현황 조사와 과거 지적자료분석을 병행해 개별지적도면 정비한 뒤 이를 바탕으로 연속지적도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허진상 민원과장은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높이고 토지경계 불일치로 인한 군민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지적정보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군 ‘농촌재능나눔 사업’ 추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고창군이 농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5-8월 ‘농촌재능나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 공모사업의 일환이다. 고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마을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재능나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존 집수리 지원사업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뤄져 대상자에서 제외된 소규모 주거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독거노인, 장애인, 고령부부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배·장판 교체, 방충망 설치, 경사로 및 안전바 설치 등 생활밀착형 주거환

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관내 4개 마을을 선정해 마을별 약 7가구를 지원하며, 총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또한, 마을 경로당과 계단, 경사로 등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유희공간을 활용한 화단 조성 등 마을 환경 개선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재능나눔 방식으로 진행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수목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내달 2일 ‘사과가콩!~’ 어린이 베스트셀러 뮤지컬 공연

동화 속 세상이 무대위로 뿜~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인 동화를 각색해 만든 어린이 뮤지컬 ‘사과가콩!~’이 내달 2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숲속에 커다란 사과가 떨어지자 개미, 너구리, 사자와 같은 많은 동물들이 그곳에 찾아와 사과를 나눠 먹으며 사각사각, 아작아작, 남남남 등의 의성어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고, 동물 친구들끼리 사과를 사이좋게 나눠 먹고, 비도 힘겹게 피하는 예쁜 동화 뮤지컬이다. 숲속 동물들이 펼치는 즐겁고 신나는 사과잔치~, 자꾸만 따라하고 싶어지는 다양한 의성어와 의태어 등으로 어린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며,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어 아이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람권 예매는 21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한다. /김제=온봉기 기자



재경부안군향우회 우금회 고향사랑기부금 5백만원 기탁

부안군은 지난 16일 수도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고향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 기업인 및 전문가 모임인 재경부안군향우회 우금회(회장 박희원)가 고향 부안의 발전을 염원하며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우금회 회원들이 오랜만에 고향 부안을 찾아 주요 명소를 직접 둘러보며, 부안의 숨결을 느끼고 고향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여정 중에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회원들은 변함없는 고향 산천의 아름다움을 눈에 담으며 고향을 잊지 않는 애뜻한 마음과 부안의 빛나는 미래를 향한 응원의 뜻을 가득 담아 기부금을 전달했다. 박희원 우금회 회장은 “타지에서 생활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고향 부안이라는 든든한 뿌리가 있었다”며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이번 기부금이 부안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군민들의 삶이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지는 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멀리서도 고향을 잊지 않고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우금회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군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부안의 미래를 밝히는 사업에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부안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총력’

예년 대비 3~4배 이상 폭증

부안군은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차단을 위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ASF는 지난 2019년 국내 첫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지난 3월 중순까지 전국 양돈농장에서 총 24건이 발생하는 등 예년 대비 3~4배 이상 폭증해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야생멧돼지 항원 검출 지역이 울산, 고령 등으로 남하·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북 지역의 경우 지리적 특성상 소백산맥을 따라 멧돼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 방역 긴장감

이 한층 높아진 상태다.

군은 이에 따라 인위적인 전파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우선 GPS를 활용해 가축 및 분뇨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동 동선과 거점소독시설 방문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해 방역 지도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ASF는 야생멧돼지 유입 및 농가출입차량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외부인 출입 통제와 차량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축산차량 운전자는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경유해 빈틈없는 방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시 ‘시민제안 시책 디자인단’ 발대식

오리엔테이션 개최

김제시가 지난 17일 ‘2026년 시민제안 시책 디자인단’ 발대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며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만드는 ‘백년 김제’를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올해 디자인단은 지난 3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됐으며, 시정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과 공무원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 약 8개월간 정기적인 모임과 전문가 컨설팅, 시 사업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시책으로 디자인하게 된다. 특히 이번 ‘시민제안 시책 디자인단’은 기존의 시책연구모임을 한 단계 발전시킨 형태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에 전문가의 시선과 행정의 경험을 더

해 시책을 더욱 정밀하게 다듬는 ‘정책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존중받는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참신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완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는 △발대식 개최, △디자인단 운영 방향 설명, △정책 개발 특강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여한 한 시민은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김제의 백년 미래를 바꾼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책 설계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여러분의 열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우리 시를 변화시킬 새로운 시책으로 거듭나고, 나아가 ‘백년 김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책 읽는 고창, 올해의 책’ 선포식 성료

고창군이 지난 16일 저녁 고창황윤석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2026 ‘책 읽는 고창, 올해의 책’ 선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2026 책 읽는 고창, 올해의 책’은 고창황윤석도서관 개관에 따라 모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고창군을 대표하는 올해의 책을 선정해 함께 읽고 소통하기 위한 독서문화 캠페인의 일환이다. 고창군도서관은 지난 3월31일 군민과 함께 읽고 공감할 올해의 책 4권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도서는 일반문학 분야 △제철행복(김신지), 비문학 분야 △정철의 독서(유시민), 청소년 분야 △늘지의 렌(최상희), 어린이 분야 △긴긴밤(루리) 총 4권이다. 이번 선포식에는 100여명의 고창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의 책을 선

포하고 선정 작가(청소년분야 최상희 작가)에게 직접 인증서 전달과 진솔한 선정 소감이 공유됐으며, 직접 참석하지 못한 작가들의 소감 영상도 함께 상영돼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2부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부는 올해의 책을 선정해 함께 읽고 소통하기 위한 독서문화 캠페인의 일환이다. 고창군도서관은 지난 3월31일 군민과 함께 읽고 공감할 올해의 책 4권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도서는 일반문학 분야 △제철행복(김신지), 비문학 분야 △정철의 독서(유시민), 청소년 분야 △늘지의 렌(최상희), 어린이 분야 △긴긴밤(루리) 총 4권이다. 이번 선포식에는 100여명의 고창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의 책을 선

김제시, 요촌동 도심 상습 투기지역 방치쓰레기 일제청소

김제시는 지난 16일 절경한 도시 환경 및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4월 국토대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은 기존 청소구역에 포함해 주민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요촌동 614-3번지 일대와 김제시민운동장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역 내 사회단체, 시민단체,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여 가로 환경을 저해하고 악취를 유발하던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이날 정비를 통해 요촌동 일대에서만 톤백 5~6개 분량의 방치쓰레기를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를 통해 그간 쌓여있던 고질적인 환경 민원을 해결하고 쾌적한 도심 미관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 시 관계자는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는 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깨끗한 가로환경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방치쓰레기에 대한 신속한 수거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완주군 '퀵스타트' 박차...인력난 정면 돌파

퀵스타트 공모 대응 기업 모집 '선교육 후채용' 인력양성 추진 최대 2억7천 국비·훈련비 지원

완주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6년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컨소시엄에 참여할 지방투자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산자부 공모 사업권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사)전북산학융합원이 한 팀이 되어 지역 내 투자 기업에 최적화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은 지방투자 예정 기업이 공장 준공 전 필요한 인력을 미리 선발하고, 기업 요구에 맞춘 특

화 교육을 시행한 뒤 준공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하는 '선(先)교육 후(後)채용' 방식의 인력양성 지원 모델이다.

신청 대상은 완주군 내 사업장 이전 및 신·증설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으로, 5인 이상의 신규 채용 계획을 보유한 지방 이전·투자 기업이다.

특히 2024년부터 2027년 사이 공장 사용승인 또는 사업 개시가 완료(예정)되는 기업이 주된 대상이다.

참여기업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인 (사)전북산학융합원과 공동으로 기업별 맞춤형 직무교육 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선발된 교육생(채용 후보자)에게는 1인당 최대 275만 원의 교육훈련 장려금이 지원되며 기업은 인건비 부담 없이 검증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모 사업의 전체 규모는 국비

11억 7,000만 원 수준이며, 참여기업은 채용 목표 인원(유형 3 기준 30~40명 미만)에 따라 최대 2억 7,000만 원의 국비와 지자체 매칭금 교육훈련비 일체 지원받게 된다. 참여기업의 의무 사항은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 채용 및 6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완주군 누리집(www.wanju.go.kr) 고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담당자 이메일(kyuri0707@korea.kr, jason_ko@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이종훈 완주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공모 대응은 완주군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인 '인력 적기 확보' 문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춘향제 '미꾸야놀이' 남원추어 매력 알린다

미꾸리 잡가먹거리 등 운영 가공식품 시식·홍보존 마련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와 남원추어식품클러스터사업단은 제96회 춘향제 기간인 오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요천 수경물놀이시설에서 '미꾸야 놀자' 행사를 추진한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약 600m 규모의 수변 시설을 활용한 미꾸리 잡기 체험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또한 △미꾸야 캐릭터를 활용한 플라주 쿠키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달고나 만들기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풍성한 먹거리 시식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는 추어식품클러스터사업단이 자체 개발한 추어완관북고기, 추어납작만두, 미꾸야 꾸이랑

과 젤리 등 영양가 높은 간식거리가 제공된다.

또한, 행사장 내 홍보존을 운영해 남원추어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미꾸야와 추나가 조형미를 활용한 야간 포토존을 운영해 낮과 밤이 모두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행사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남원 미꾸리 산업의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한다. 시는 춘향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추어육개장, 추어해장국, 추어해물전골, 추어탕블럭, 미꾸야 자일리톨 캔디 등 일상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추어 가공식품을 집중 홍보해 실질적인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추어식품클러스터사업단은 "남원추어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 디지털 콘텐츠 제작 교육

완주군이 지역 청년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홍보의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청년 크리에이터즈 역량 강화 사업' 기초과정 참여자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누리소통망(SNS) 기반 콘텐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청년들이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추고 지역 홍보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했다.

모집하는 기초과정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의 기초 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여자는 숏폼 콘텐츠 기획, 촬영 및 편집,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등 콘텐츠 제작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실습 중심의 활동을 통해 실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험을 쌓는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와 영상 제작, 누리소통망(SNS) 플랫폼에 적합한 콘텐츠 기획 등 최신 경향을 반영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참여 청년들의 실질적인 제작 역량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모집 대상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누리소통망(SNS) 활용에 관심 있는 완주군 청년으로, 약 2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며, 기초과정은 4월 말부터 6월까지 운영된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섬진강 수상레저 무료 체험교실 운영

4월 25일-6월 7일 주말 프로그램 카누·카약 체험 전 안전교육 실시

순창군은 군민과 관광객이 수상레저를 쉽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유등면 화탄마을 앞 섬진강변에서 '수상레저기구 체험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

이번 체험교실은 전북도와 순창군이 후원하고 섬진강수상레저연맹이 주관하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참가자는 전문 래프터 가이드로부터 수상 안전교육과 노 젓는 방법을 배운 뒤 카누와 카약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체험 장소인 유등면 화탄마을은 순창의 대표 관광명소 용골산 하늘길과 차랑으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관광과 체험을 함께 즐기기에 좋다.

또한, 현재 순창읍 경천·양지천 일대



<사진=순창군>

에는 다양한 봄꽃이 조성돼 있어 봄철 나들이를 계획하는 관광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험 신청은 섬진강수상레저연맹으로 사전 전화 예약하면 된다. 체험은 시간대별 20명씩, 하루 최대 100명까지 이용 가능하며, 예약 인원이 부족할 경우 현장 방문객도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섬진강은 물이 맑고 물살이 비교적 잔잔해 카누와 카약을 즐기기에 적합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16,712명이 수상레저 체험에 참여하며 순창군의 이용 가능하며, 예약 인원이 부족할 경우 현장 방문객도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시설관리공단, 마을버스 현장 소통 강화

이사장 직접 버스 탑승 애로 청취 배차 간격 등 의견 정책 반영 추진

완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수)이 마을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섰다.

공단은 지난 16일 고산북부권 마을버스에 이희수 이사장을 비롯한 버스 운영 행정팀이 직접 탑승해 군민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공단은 지난달 30일부터 고산북부권(고산, 비봉, 화산, 은주, 경천) 23개 노선에 전기버스 8대를 포함해 마을버스 9대를 투입해 운행 중이다.

이날 공단 이사장은 고산터미널에서 5-4번 버스에 올라 대둔산까지 약 1시간 동안 주민들과 함께 이동하며 운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군민들의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사진=완주군>

버스 안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완주군이 직접 마을버스를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모습이 반갑다"며 "마을에 나이 먹은 사람들은 마을버스 없으면 밖에 못나간다"며 배차 간격 확대 등 실질적인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희수 이사장은 "대중교통이 아깝다. 불편적 복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미취학 어린이 대상 구강보건사업 추진

순창군은 지역 미취학 어린이들의 올바른 치아관리 습관 형성과 충치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5월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미취학 어린이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3세 이상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불소도포 등을 실시해 아동기 치아우식을 예방하고 소아 구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사업은 순창군 보건의료원 구강보건센터와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22개소에서 진행되며, 총 228명의 원아가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시청각 자료와 3D 입체 교구를 활용한 구강보건교육, 노래와 함께하는 올바른 칫솔질 체험, 충치 및 부정교합 여부 확인을 위한 구강검진, 불소도포 등이 포함된다.

특히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체험형 교육을 통해 치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가정에서도 올바른 칫솔질 습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스마트농업 인재 키운다...특성화고 공모 도전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 본격 추진 산학연 14개 기관 협력 협약 체결

남원시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인 스마트농업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해 남원농성고등학교와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지난 17일 '2026년 협약형 특성화고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원시, 남원농성고등학교, 풀리텍대학교 전북캠퍼스, (재)남원시사이오산업연구원, (사)전북산학융합원, (사)한국농업미스터협회 전북도지회, (사)한국농업기

계학회, ㈜티에스팜, ㈜판한농, 원푸드, 남원청년농업인연합청년지음, 지리산 처령영농조합법인 등 총 14개 산·학·연·그리고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기업·특성화고가 협약을 맺고 지역 밀착형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25년부터 남원농성고, 전북테크노파크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스마트 농업 SW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남원농성고는 교육부의 '2025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을 통해

스마트팜과, 드론팜테크과, 카페플라워과로 학과 개편을 마쳤으며, 전북에서 유일하게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약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전국적인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인재 육성은 물론 학생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해 정착할 수 있는 '교육-취업-정주'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농성고가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되면 지역 청년들이 남원을 떠나지 않고도 전문 기술을 익혀 꿈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취·창업 역량 제고

3개 과정 30일까지 수강생 모집 실무 중심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순창군은 군민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오는 30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군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을 돕고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모집 과정은 △병원동행매니저 1급 과정 △AI 시니어교육 전문지도사 과정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과정 등 3개 과정이며, 과정별 15명 내외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5월부터 6월 사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청년문화센터와 여

성회관 등에서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의료서비스 이해와 실무 돌봄 기술, 노인 심리와 생성형 AI 기초 및 디지털 교수법, 반려동물 행동교정과 관련 법률·관리 교육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신청 대상은 순창군민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 방문 또는 이메일(suhyeong8798@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재비와 재료비, 자격증 발급 비용 등은 일부 자부담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다양한 취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유희태, 전 세대 아우른 '생활밀착' 공약 발표

청년 일자리·육아지원 균형 제시 중장년 평생교육·노인돌봄 강화

유희태 완주군수 후보가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공약' 19건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 패키지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층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먼저 아동 분야에서는 전국이 주목하는 '완주형 아동친화 모델'을 한층 고도화한다. 도시형 거점센터 조성을 통해 '초등 방과후 365 돌봄체계'를 촘촘하게 다지는 한편, 편의점·음식점 등으로 아동친화상징 인증제를 확대해 '예스키즈존(Yes Kids Zone)' 문화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시킨다.

청소년 세대를 위해서는 미래역량과 마음건강을 동시에 챙긴다. 초·중등 청



유희태 후보

소년을 대상으로 AI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해 디지털 경쟁력을 키우고, 아동 옴부즈퍼슨 사무소와 연계한 청소년 멘탈헬스 상담을 강화한다.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는 생리대 비용을 지원한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일·살·육아가 균형을 이루는 도시를 만든다. 국부조성실 주관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하며, 미취업 청년에게는 국가자격시험 응시료를, 젊은 아빠에게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단계적 확대 지원한다. 공공기관 행정인턴십도 새롭게 운영한다.

중년층에게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평생학습 기반을 넓힌다. 중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노인 세대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주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완주형 어르신 통합돌봄, 스마트 경로당 운영 확대 등 5대 과제를 일체적으로 추진한다.

여성 정책 분야에서는 출산·양육이 두렵지 않은 완주를 만든다. 성평등가점주 주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양육 환경을 개선한다.

유 후보는 "단순한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군민 '생활의 정화'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먹거리위원회 개최...15개 과제 점검

먹거리 복지·로컬시장 확대 논의

완주군이 지난 16일 군청 4층 중회의실에서 먹거리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먹거리 위원회'를 열고 군민 모두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정책 수립에 나섰다.

이종훈 군수 권한대행이 진행한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먹거리 종합계획의 중점 추진사업 보고와 위원들의 의견 수립이 활발히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먹거리 종합계획의 6대 분야 15개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

편적 먹거리 복지 실현 △지역 농산물 기반의 관계형 시장 확대 △탄소중립 기반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태계 조성 등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세연 위원장은 청년들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개발 경진대회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농가에 적용해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진경 위원은 관내 8개교에서 추진 중인 저탄소 급식 실천 관련, 저탄소 인건 육류를 공급하는 방식이 학생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의견을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특히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정보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중심으로 담당 직원이 가정 방문에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카드를 현장에서 직접 신청받고 전달하고 있다.

아울러 카드 사용 방법과 유의사항을 함께 안내해 주민들이 지원 혜택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즉시 대응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

탁과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직접 찾아가는 신청 안내를 통해 주민 한 분 한 분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생활 안정과 복지 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무주군, 비만 예방 프로그램 '슬림 나이트' 진행

무주군이 지역 주민들의 활력 넘치는 여가생활과 군민들의 건강 지표 개선을 위한 비만 예방 프로그램, '슬림 나이트'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직장인 등 낮 시간에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오는 5월 28일까지 8주간(총 18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무주군보건의원 별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슬림 나이트'는 개인별 건강 데이터 측정과 단계별 운동 프로그램을 결합한 맞춤형 관리가 핵심으로, 이를 위해 무주군보건의원에서는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전후 혈압 및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초 건강 검사를 진행한다. 또 한 인바디(InBody) 측정을 통해 근육량 및 체지방률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운동은 신체 부위별 근력 운동과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며 감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하체와 코어를 집중적으로 단련해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훈련을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인터벌 트레이닝과 리듬 운동 등 체지방 연소에 탁월한 유산소 운동을 단계별로 구성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 실시...학생 안전의식 강화

장수군보건의원에서는 지난 17일 계곡면 덕유샘학교에서 장수소방서와 협력해 '2026년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춰 기획됐으며, 덕유샘학교를 시작으로 다음달 22일 산서초등학교를 방문해 순회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장수소방서 소속 전문 구급대원이 강사로 참여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구성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부안군, 먹거리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진안군은 지난 17일 군청 부안군수실에서 부안군과 지역 먹거리 상생발전 및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진안군의 청정 고원 농산물과 부안군의 신선한 서해안 수산물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경영 진안부군수와 정화영 부안부군수를 비롯한 양 군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양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존별 제휴푸드 특별판매권 운영 △농·수·특산물 및 가공품 상호 교류 △지역 축제 및 행사 연계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부안군에 흉상 가공품과 고랭지 수박, 사과, 고로쇠 등 농특산물을 공급하고, 부안군은 진안군에 꽃게, 바지락 등 신선한 수산물과 찻갈퀴, 천일염 등을 계절 시기에 맞춰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지역은 각 특산물의 제철 시기에 맞춰 상대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내 '특별판매 코너'를 운영하고, 할인 행사와 집중 프로모션을 병행한다.

특히 오는 5월 개최되는 '부안 마실축제'를 시작으로 제휴푸드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2036 미래발전전략' 본격

17일 2차 중간보고회 개최 59개 3.8조 규모 사업 구제화

임실군이 향후 10년을 향해 나아가길 3조8천억 규모의 '임실군 2036미래발전전략' 청사진을 공개, 본격적인 추진에 돌입했다.

군은 최근 '2036 임실군 미래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열고, 앞으로 10년을 이룰 미래 비전과 분야별 핵심사업을 점검했다.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임실군 전역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경제, 문화·스포츠, 관광, 지역개발·SOC, 복지 등 균형 전반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대내외 환경 변화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임실미래비전 2026 수정계획' 수립 이후 달라진 정책기조를 반영한 새로운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임실만의 차별화된 대표 전략과제와 지

역 맞춤형 특화사업을 발굴해 단계별 실행계획과 투자·재원조달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에는 군민과 관계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AHP 분석 결과가 반영됐다. 조사결과 군민들은 임실군이 '성장·균형·협력'을 핵심가치로 '군민행복'을 중심으로 '휴양관광'과 '농생명·식품' 도시로 성장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책 중요도에서는 농업·농촌과 산업·경제 분야가 높게 나타났으며, 산업·경제 분야는 우선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한 영역으로 분석됐다.

보고회에서는 임실군의 중장기 목표도 함께 제시됐다. 임실군은 2036년까지 지속가능 인구 2만5천명, 지역내총생산 1조2천억원, 재정자립도 20% 달성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주거와 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거점 육성, 사람·기업·자원이 융복합하는 산업생태계 조성, 생활인구 활동기반 확충 등을 핵심 방향으로 제안했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화, 미래세대 육성,

지속가능한 농촌 활력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식품산업과 산업·경제 분야는 임실치즈 산업 고도화, 기능성 유가공 그린바이오, 반려동물 연관산업 및 팻푸드 산업 육성, 농공단지 활력 제고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관광 분야는 옥성호와 치즈테마파크, 오수외견 관광지 등을 연계한 체류형 방문관광지 조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지역개발·SOC와 복지 분야에서는 읍면 생활인프라 확충, 교통 접근성 개선, 임실형 통합돌봄 전담체계 구축 등 군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담았다.

이번 중간보고안에는 총 8개 분야, 59개 사업, 3조 7,940억 규모의 사업이 반영됐다.

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핵심사업을 구제화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햇빛소득마을 추진 시동

17개 마을 참여 의지 보여

법정부 차원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 추진이 본격화 움직임을 보이며서 무주군에서는 17개 마을이 참여 의지를 보이는 등 주민들 관심이 모이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마을 부지나 시설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참여 마을에는 태양광 설치 시 정부 정책자금 융자(연 1.75%, 변동금

리)를 비롯해 농어촌 공사 및 지자체 소유 저수지, 비축 농지 등 부지 임대 지원, 교육 등이 지원된다.

무주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4일 농협 등 지역 내 금융기관,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한국전력 무주지사 등과 함께 민관합동 '햇빛소득마을 추진(자문)단'을 구성(12명)하기도 했다.

이들은 마을 수요발굴, 주민 수용성 확인, 인허가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자문위원 역할을 하게 된다.

노장환 무주군 햇빛소득마을 추진(자

문)단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에는 무주군민의집에서 햇빛소득마을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심이 모였다. 군은 앞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해 햇빛소득마을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촌지역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 2026 일자리대책 연차별 계획 공시

미래농업 중심 일자리 창출 청년·복지관광 4대 전략 설정

장수군은 지난 14일 농업 중심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도 장수군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목표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 고용 활성화 정책 중 하나다.

장수군은 '미래농업과 청년, 조화로운

일자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2026년 추진 전략으로 △미래농업 중심 부자농촌 △희망을 키우는 청년특화 △행복한 일상의 희망복지 △공존하는 장수의 문화관광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고용률(15~64세 기준) 77%, 취업자수 14,400명 초과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차세대 농업을 이끌 스마트팜 후계농업인 육성과 함께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통해 균형 있는 고용 환경 조성에도 힘을 보탤 것이다.

박경애 농산업정책과장은 "지역소멸 위기와 노동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과 고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설립교육 성료

6단계 추진 로드맵 수립 단계별 밀착 지원

임실군이 '2026년 햇빛소득마을' 정부 공모 사업 추진 주체인 '마을협동조합' 설립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군은 지난 16일 임실행복나눔센터에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47개 마을 주민 및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설립 실무 교육'을 개최했다.

앞서 군은 사업의 공모 시작에 맞춰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준비하며 겪을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의 협동조합 설립 △부지 발굴 및 계통 연계 △사업 인·허가 △자금조달 계획 수립 △사업 신청으로 이어지는 6단계 추진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번 교육은 2단계인 협동조합 설립 지원으로 주민들이 직접 사업 주체가 되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야 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특성상, 가장 생소하게 느끼는 설립 절차와 행정 실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향후 군은 협동조합을 구성한 마을들

을 대상으로 로드맵 3단계인 '부지 발굴 및 전력 계통 연계' 확인 작업을 본격화하며, 이를 위해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가동하여 공모 접수 전까지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이 오색단풍작은도서관을 '치매극복선도 도서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무주군>

무주군, 치매선도 도서관 운영

적성면 오색단풍작은도서관 '치매극복선도 도서관' 지정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40%를 넘어선 무주군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색단풍작은도서관을 '치매극복선도 도서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오색단풍작은도서관은 앞으로 책을 빌려주는 공간을 넘어 △치매 관련 정보 제공,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 홍보, △적성면의 치매 안팎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무주군치매안심센터에 따르면

'치매극복선도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치매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 거점'이라며, 오색단풍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을 방문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응대도 가능하도록 상주 직원 2명이 모두 치매 파트너 교육을 수료하는 등 서비스 기반을 갖췄다.

오는 24일까지는 '치매극복선도 도서관' 현판을 걸고 별도의 '치매 도서 진열대'를 마련해 △치매 예방, △돌봄 가이드, △인식 개선 등 치매 관련 도서와 간행물을 비치할 계획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N펫스타 멍멍트레인' 참가자 모집

반려견 동반 전용 열차 운영

임실군이 오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2026 임실N펫스타'를 앞두고, 반려견과 함께 떠나는 특별 전용 열차 상품인 '임실N펫스타 멍멍트레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멍멍트레인은 축제 이틀남인 5월 2일 단 하루 운영되는 특별 관광상품으로, 코레일 전북본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반려동물 전문 여행사(썬펫츠)와 협업을 통해 반려인들이 장거리 운전의 부담 없이 축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열차는 총 6량, 428석 규모의 임시열

차로 운행되며, 5월 2일 오전 7시 30분 경 서울역을 출발해 영등포·수원·평택·천안·서대원·익산역을 거쳐 오전 11시경 임실역에 도착한다.

열차 좌석은 반려인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반려견 좌석을 포함해 1인 2좌석을 제공하며, 전 일정에 반려동물 전문 여행가이드가 동행해 안전관리와 케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반려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상품은 선착순 200명을 모집하며, 예약 및 자세한 사항은 펫츠코트레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민원담당 직원 힐링 프로그램 실시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치유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장수군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와룡자연휴양림 일원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치유를 위한 '2026년 민원담당 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민 접점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감정 노동에 지친 직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보다 친절하고 수준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신체와 마

음을 동시에 돌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소울가드를 활용한 자기 이해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심리적 안정을 돕는 힐링 체험 '나만의 테라리움 만들기' 등이 진행됐으며, 직원들은 자연 속에서 일상의 긴장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우 부군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이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자동차 체납근절 유관기관 합동단속

임실군은 지난 16일 임실 운수과출소 앞 도로변에서 임실군, 임실경찰서 합동 자동차 관련 체납근절을 위한 유

관기관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교통질서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이 단속 대상이었으며, 무선 영상단속시스템 탑재 차량을 활용해 체납 여부를 실시간 확인해 변호관영치 및 납부 안내했다.

현장에서 단속된 체납차량에 대하여

는 변호관영치 및 영치예고를 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5백여 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0여 대의 차량에 대하여는 납부안내 조치했다.

임실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 합동단속을 실시해 군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군산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줍깅 캠페인 실시

군산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은 제46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지역사회 인식개선과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배려, 큰 변화' 줍깅 캠페인을 4월 한 달간 총 3회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일과 10일, 17일 은파유원지, 군산대학교, 월명동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함께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펼쳤다. 단순한 환경 정화 활동을 넘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참여자들은 "내가 줍는 작은 쓰레기 하나가 우리 동네를 바꾸고, 작은 배려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는 의미를 되새기며 지역 곳곳의 환경 정화에 나섰다.

특히 발달장애인 수강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김제시자원봉사센터 '네일아트 봉사단' 첫 재능 나눔

김제시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가 지난 16일, 북죽동 리문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네일아트 봉사단의 첫 번째 재능 나눔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전문봉사자 양성과정을 통해 8회에 걸친 젤네일아트 전문교육을 수료한 봉사자들이 "네일아트 전문봉사단"을 발대하고 처음으로 실시한 봉사 활동이다.

한 어르신은 "평생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이 이렇게 예뻐진 것을 보니 마음까지 젊어지는 기분"이라며 "봉사단원들이 딸처럼 다정하게 손을 잡아줘서 손끝뿐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졌다"고 말했다.

남궁행원 센터장은 "바쁜 일정에도 교육을 완수하고 곧바로 봉사활동에 뛰어든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네일아트 봉사단이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 봉사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재부산 임실군 향우회, 제29차 정기총회 개최

서대수 회장 이·취임

재부산 임실군 향우회는 지난 13일, 부산전구 이리스웨딩홀에서 제29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재부산임실군 향우회 제13대 회장으로 새롭게 취임한 서대수 회장을 비롯해 재부산 호남향우회 지역별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1부 행사에는 시상식, 회장 이·취임식, 축사 등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제11, 12대 회장으로 지난 4년 간 재부산 임실군 향우

회를 이끈 장인수 이임회장은 재부산 임실군 향우회 발전과 고향 임실 발전의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상하였다. 2부 행사는 오랜만에 만난 재부산 임실군 향우회원, 지역 주민, 호남향우회 지역별 임원들이 함께하는 화합행사로 이뤄졌다.

이날 취임한 서대수 회장은 "향우회원과 지역주민이 모처럼 한자리에 만나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향 발전과 재부산 임실군 향우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재부산 임실군 향우회는 지난 13일, 부산전구 이리스웨딩홀에서 제29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임실군>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 딸기잼 만들기 이웃사랑 실천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정자)는 지난 17일 종합운동장에서 '사랑의 딸기잼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16일 시작한 이번 행사는 협의회 회원 60여 명이 참여해 익산에서 재배된 신선한 딸기 3,000kg으로 딸기잼을 만들었으며, 판매 수익금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사용될 예정이다.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2007년부터 딸기잼 만들기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매년 따뜻한 마음이 담긴 딸기잼을 구매하려는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정자 회장은 "회원들이 함께 모은 정성이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랑과 화합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남원시자원봉사센터, 에너지절약 캠페인 실시

위기 극복의 해답은 일상 속 에너지절약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안보 위기 극복과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확산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자원안보 위기극복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와 청소년, 인

전자연합 전북지부 남원지회 회원 10명이 참여해 하이즈아파트 일대, 축전교 사거리, 교통중 정문 등 주요 통학·통행 구간에서 활동을 펼쳤다. 교통봉사와 병행하여 출근길 시민과 등교길 학생들에게 자원안보의 가치를 알리고 에너지 절약 동참을 호소했다.

둘째 날인 14일에는 남원예술고 근 시·군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을 독려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첫째 날인 13일에는 전국모범운

남원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자원안보는 더 이상 특정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일



상에서 실천해야 할 과제"라며, "캠페인 도우미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페인을 통해 자원안보 위기 극복에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상관면 '방가네', 착한가게 동참

완주군 상관면에 위치한 식당 '방가네'(대표 방영숙)가 매달 수익 일부를 이웃과 나누는 '착한가게' 대열에 합류했다.

상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정기적인 기부로 나눔의 발걸음을 함께하게 된 '방가네'를 찾아 나눔 인증 현판을 전달하고 고마움을 전했다.

'착한가게'는 매출의 일정액(월 3만 원 이상)을 적립해 지역사회 복지 사업에 사용하는 공동체 나눔 캠페인이다.

이번에 참여한 '방가네'는 평소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이번 후원을 결정했다.

방영숙 대표는 "식당을 운영하며 마주하는 우리 동네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거창한 기부는 아니더라도 꾸준한 마음 전달을 통해 더불어 사는 재미가 있는 상관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영·유아 '로컬푸드 딸기 수확 체험' 활기

완주군 영·유아들이 지역 농산물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끼는 특별한 체험의 장에 참여하며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다.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가 오는 5월 15일까지 관내 어린이 집과 유치원 50개소, 약 1,2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2026년 로컬푸드 딸기 수확 체험 및 식농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활동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 지원사업인 '2026년 로컬푸드 관계 시장 확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미래의 소비자인 아이들에게 지역 먹거리의 가치를 알리고자 마련했다.

체험은 삼례와 봉동 등 완주군 내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딸기 농가에서 직접 이루어진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계적인 '식농(食農) 교육'을 병행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군산 나운3동지사협, 90세 어르신 생신 축하

군산시 나운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90세 어르신 생일 음식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90세 어르신 생일 음식 지원사업'은 지역 내 90세 이상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생일을 축하하고 음식을 전달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고독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나운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이다.

다. 강왕근·임진희 공동위원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다양한 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착한가게와 착한가정 등 기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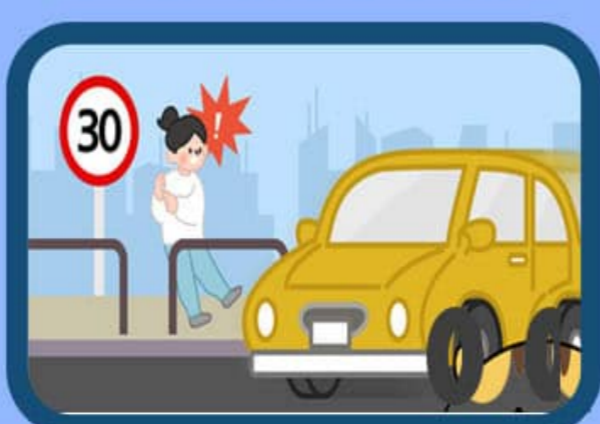
/군산=지송길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불법 주정차 금지



시속 30Km이하 서행



횡단보도 일시정지



급제동 급출발 금지



〈一事一言〉



‘노사 법치주의’라는 정공법, 민생을 살리는 첫걸음이다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정치적 공과(功過)를 떠나 윤석열 정부가 지난 국정 운영 과정에서 가장 결단력 있게 추진했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분야를 꼽으라면 단연 ‘노사 법치주의’의 확립이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고질적 병폐였던 강성·극속 노조의 불법 행위와 특권 의식에 대해 타협 없는 원칙으로 대응한 것은, 우리 사회의 뒤늦은 공정의 가치를 바로 잡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었다. 특히 건설 현장의 월례비 갈취와 채용 강요 등 ‘외외법권’처럼 군림하던 관행을 정면으로 돌파한 점은 민생 현장의 비명을 외면하지 않은 실효적 조치였다.

민주주의 정당성과 법의 지배는 산업 현장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하지만 그간 우리 건설 현장은 어떠한가. 타워크레인 기사 등에게 지급되던 비공식 사례금인 ‘월례비’는 이름만 사례금일 뿐, 사실상 안 주면 공사를 멈추겠다는 ‘협박성 갈취’로 변질된 지 오래였다. 안전 작업을 빙자한 태업은 일상이 되었고, 공기(工期)에 쫓기는 하청업체들은 부도를 막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뒷돈을 상납해야 했다. 정의로운 노동의 가치를 외치는 현장에서, 정작 힘없는 영세 하청업체들은 거대 노조의 장비 기사들의 서슬 퍼런 갑질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이러한 ‘불법 관행’의 직격탄은 전북과 같은 지역 경제에 더욱 가혹하게 작용했다. 대형 건설사와 달리 자본력이 취약

약한 전북 내 중소 건설사들은 월례비와 같은 비공식 비용을 감당할 기초 체력이 없다. 가뜩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사투를 벌이는 지역 업체들에게 이런 부당한 추가 비용은 도산으로 가는 급행열차와 같다. 지역 건설사의 몰락은 단순히 기업 한두 곳의 폐업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곧 지역 노동자의 실직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며, 전북 경제의 허리를 끊어놓는 연쇄 붕괴를 초래한다. 강성 노조의 기득권 지킴이가 지역 민생을 고사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모든 불법적 비용의 종착지가 결국 도민들의 주머니다. 건설 현장에서 집행되는 전문학적 월례비와 급행열차는 공사비에 고스란히 숨어든다.

이 비공식 비용은 최종적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주범이 되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전가된다. 우리 이웃들이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이 건설 현장의 불법적인 ‘상납금’을 메우는 데 쓰이고 있는 셈이다. 분양가 상승은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고, 이는 지역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정부가 강성 노조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 것이 곧 서민의 주거 복지를 지키는 일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그간 ‘건설 현장 폭력 행위(건폭)’ 근절을 선포하며 단호한 법 집행을

이어왔다. 물론 일각에서는 노동권 침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법 테두리를 벗어난 특권과 폭력은 결코 노동권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태업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노동계 전체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노동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이제 우리는 이 노사 법치주의를 일시적인 단속을 넘어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단속의 눈길이 느슨해질 때 다시 고개를 드는 고질적인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선 현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정치는 거창한 이념 투쟁이 아니라 민생의 고통을 해결하는 현장에 존재 이유가 있다. 전북 지역 건설업계를 고사시키고 도민들의 희망을 앗아가는 불법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민생 정치의 출발점이다.

정의는 강자의 목소리가 큰 곳이 아니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곳에서 실현된다.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노사 법치주의의 원칙이 전북의 건설 현장에서도 단단히 뿌리 내려, 하청업체의 눈물을 닦아주고 도민들의 분양가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강성 노조의 횡포에 당당히 맞선 그 결단력이 전북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독자투고

올바른 112신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



우리 일상 속에서 위험한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이 때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인 바로 ‘112 신고’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112 신고 방법을 단순한 전화로만 인식하거나, 긴급 상황에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 적절한 대응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다양한 신고 수단을 정확히 알고, 올바른 신고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112 신고는 단순 음성 통화를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보이는 112’ 서비스는 영상통화를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어, 경찰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말 없는 112 신고(똑똑)’ 서비스를 이용해 문자나 버튼 입력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외국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 역시 운영되고 있어 언어 장벽 없이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신고 방법은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정폭력이나 교제 폭력과 같이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용히 신고할 수 있으며, 범죄 현장을 영상으로 전달함으로써 중요한 증거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결국 올바른 신고는 단순한 신고를 넘어 범죄 예방과 해결의 핵심적인 단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국민의 인식과 참여가 없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불필요한 신고를 하거나, 정확한 위치와 상황 설명이 부족한 경우는 경찰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신고 시에는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침착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허위·장난 신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안전한 사회는 경찰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신고 방법을 알고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112 신고는 단순한 전화번호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안전망이다. 이제는 다양한 신고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올바른 신고 문화를 정착시켜 보다 안전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전주독진경찰서 범죄예방계
경장 양희주

전북의미래, 자연에서 시작합니다.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678-4271
인후지사 010-8640-6855
팔복지사 010-3015-4791
송천지사 010-5242-3694

군산지국 010-8641-7942
남원지국 010-2285-3987
익산지국 010-9560-3075
김제지국 010-4572-6112
정읍지국 010-2800-2934

무주지국 010-6411-0835
임실지국 010-8642-6502
진안지국 010-2433-1721
장수지국 010-8626-6049
순창지국 010-5312-7293

부안지국 010-7247-3947
고창지국 010-2258-3734
원주지국 010-3672-0308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타임스
연중 캠페인

사설

친환경·저탄소 농업, 전북의 재도약 시험대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농업의 방향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이런 점에서 전북자치도가 ‘친환경·저탄소 농업 메카’로의 재도약을 선언하고 올해 377억 원을 투입해 생산기반·유통·환경보전 등 3개 분야 23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시의적절하다.

특히 감소세를 보이던 친환경 인증 면적과 농가수가 5년 만에 반등한 흐름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지도 읽힌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전국 친환경농업은 농가 수와 인증 면적 모두 뚜렷한 감소세를 겪었다. 수요는 늘지만 생산 기반은 위축되는 구조적 모순 속에서 농업인의 고령화와 비용 부담은 친환경 전환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전북도의 이번 정책은 단순한 확대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생산기반 측면에서 신규 농업인 육성과 멘토링, 품목 다양화 지원은 바람직한 접근이다. 벼 중심에서 과수·채소 등으로 확대하고 시설·장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이다. 다만 시설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기

술 교육과 판로 연계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유통과 소비 확대 역시 정책의 성과를 가늠할 관건이다.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중심의 안정적 판로 확보, 안전성 검사와 물류 지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지역 내 소비를 넘어 대도시 시장까지 확장할 수 있는 브랜드 전략과 가격 경쟁력 확보 방안이 병행되지 않으면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농업환경 보전과 저탄소 농업 확산이다. 논물 관리, 바이오차 투입 등은 온실가스 감축과 토양 개선이라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북이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 전국 1위를 기록한 성과를 이어가려면 인증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소득 증대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 친환경·저탄소 농업은 정책 지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농업인 참여, 소비자 신뢰, 시장 구조가 함께 맞물릴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구축된다. 전북자치도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총합한 실행으로 ‘대한민국 농업 전환의 모델’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

오늘의시

잘못 들어선 길은 없다 / 박노해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슬퍼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삶에서 잘못 들어선 길이란 없으니
온 하늘이 새의 길이듯
삶이 온통 사람의 길이니
모든 새로운 길이란
잘못 들어선 발걸음에서 찾아졌으니
때로 잘못 들어선 어둠 속에서
끝내 자신의 빛나는 길 하나
감감한 어둠만큼 밝아오는 것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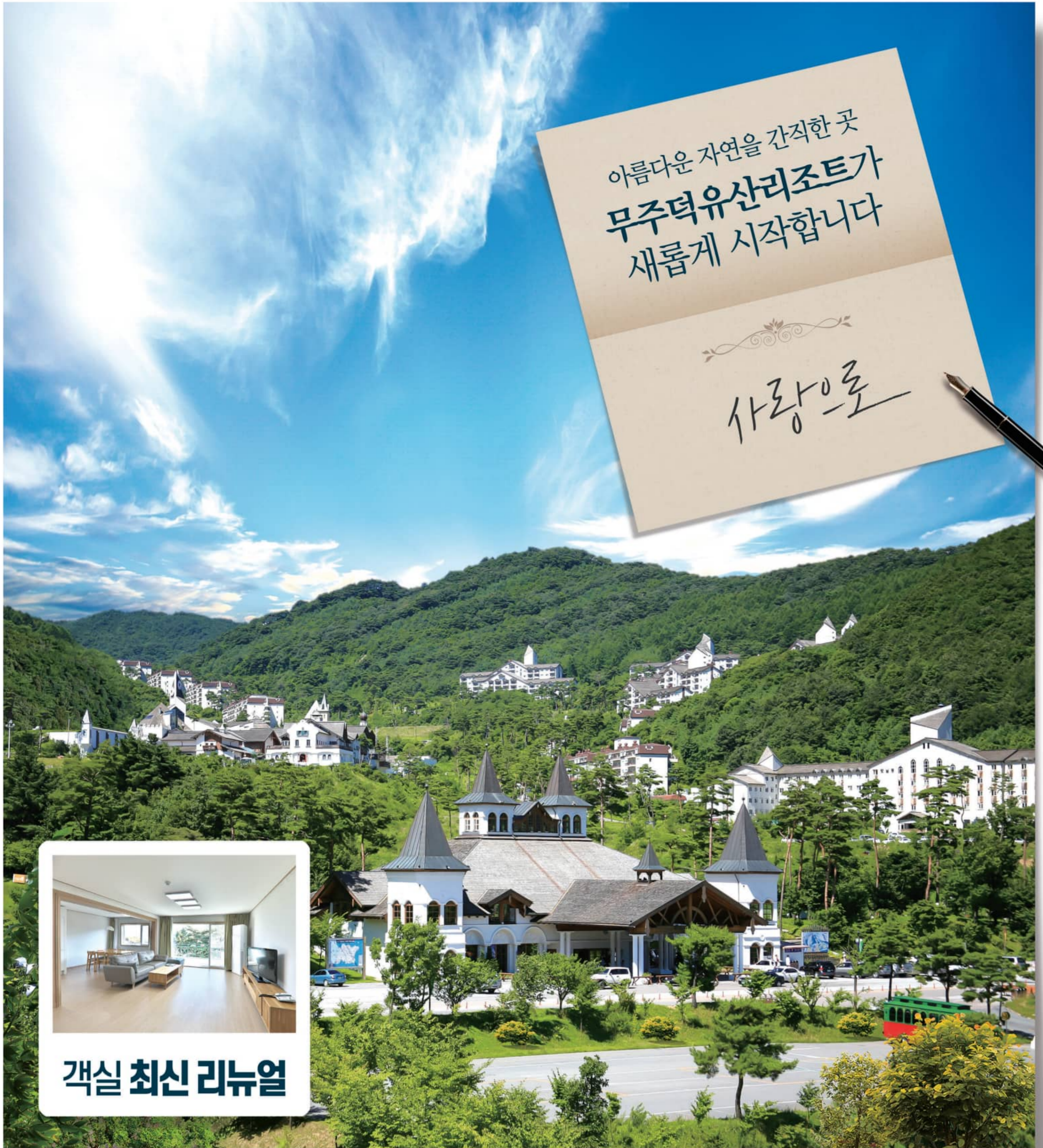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16세에 상경해 선린상고를 졸업했다. 1983년 ‘시와 경제’에 ‘시대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4년 시집 ‘노동의 새벽’을 내서 1백만부 이상 팔려 밀리언 셀러가 됐다. 1991년 안기부에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8년 DJ 정부때 특별사면으로 7년6개월 만에 출소했다. 이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복권되었으나 국가보상금을 거부했다. 옥중에 세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등 다수의 작품을 출간했다.

전북타임스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創刊 /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원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객실 최신 리뉴얼

세상을 즐겁게, 휴식을 새롭게
자연과 힐링이 함께하는
무주덕유산리조트



※ 본 광고에 사용한 이미지 및 내용, 문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알프스풍 4계절 리조트



알파인 스키의 본고장, 오스트리아 산악 지대의 휴양시설을 그대로 담은 리조트

| 새로워진 객실서비스



쾌적함과 편안함을 더해 새롭게 리노베이션한 고급·실속형 객실 서비스

| 정상까지 가볍게 곤도라



덕유산의 사계를 즐기며 정상까지 쉽게 오를 수 있는 덕유산 명물 관광곤도라

| 국내 최장거리 스키코스



6.1km 국내 최장거리 코스와 국내 최고 경사도 코스 등 6가지 스키 슬로프